

공개된 정보

2019년 12월 1일 밤 11시 30분경, 유명 영화감독 최승배가 스튜디오 촬영장 안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시체는 천장 높이 설치된 조명 레일에 매달려 있었고, 목에는 두꺼운 전선이 감겨있었다. 주변에 사다리나 높이 올라갈 만한 물건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살 같지는 않다. 이날은 심야까지 촬영이 예정되어 있었다. 촬영 중인 영화는 '뒤틀린 정원'. 교외의 대저택을 배경으로 한 가족의 비극을 그린 내용이다. 최근 영화계에서 VIP 대접을 받고 있는 명배우 조영신이 주연으로 결정되며 촬영 전부터 화제가 되었다.

최승배가 죽은 것은 오후 10시부터 11시 30분 사이다. 촬영 중에는 스태프가 다 모여 있었고, 오후 10시부터 휴식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사체의 최초 발견자는 단역 배우 김주원, 발견 시각은 11시 30분이다. 스튜디오는 시가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고, 넓은 장대 숲에 둘러싸여 있어 외부인이 드나들었을 리는 없다. 현장의 인원 중 알리바이가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은 사람은 총 4명. 범인은 반드시 이 안에 있다.

용의자들의 알리바이 증언에 따른 타임라인

오후 10시	조민형, 최승배의 심부름으로 촬영장을 나감
	이수현, 컨테이너로 출발
	김주원, 주차장에서 대본 연습
오후 10시 10분	이수현, 컨테이너에서 쉬다가 잠들
오후 10시 30분	조영신, 숙소로 출발
오후 10시 40분	조민형, 철물점 도착
오후 10시 50분	조민형, 사다리 구입, 다시 촬영장으로 출발
오후 11시	조영신, 숙소 도착
오후 11시 10분	조영신, 촬영장으로 출발
오후 11시 30분	김주원, 촬영장에 미리 왔다가 최초로 시체 발견
	조민형, 촬영장 복귀
	이수현, 비명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뒤 촬영장 도착
오후 11시 40분	조영신, 촬영장 복귀



이수현(54)



이수현(54) 남

→ 당신은 범인이 아니다.

* 비밀: 대학교 시절부터 최승배의 부인을 짝사랑하고 있다.

* 승리조건: 1. 범인을 찾아낸다. 2. 범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들이지 않는다.

당신의 행적

당신은 최 감독의 대학교 동기이며, 이번 영화의 조명 감독이다. 조명 감독이지만 오랫동안 최 감독의 측근 역할을 해왔기에, 연출부에도 상당한 힘을 끼치고 있다. 당신에겐 30여 년간 지켜온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최승배의 부인 신연주에 대한 사랑. 지금도 잡지에서 찢어낸 그녀의 사진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 그렇다고 특별히 그녀를 빼앗고 싶거나 최승배에게 원한을 가지지는 않았다. 당신은 자신이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최승배와 그녀가 결혼을 발표했을 때도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며 축하해주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다. 최근 당신은 최승배가 부인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가 크게 다쳐 입원까지 했다는 소식에 불면의 밤을 보내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은 한 비디오테이프를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그 테이프는 10년 전 최승배의 영화 '캔디걸'의 미공개 테이프. 이 테이프를 찍었던 날 조감독 조승원이 촬영장에서 목을 매 자살했고, 이날 찍은 테이프는 "재수 없다"라는 감독의 한마디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승원을 특별히 아꼈던 당신은 폐기 직전이었던 그 테이프를 빼돌려 유품 삼아 보관하고 있었다.

사실 특별히 아꼈다고 자부하기도 민망한 것이, 그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승원의 흔적이라고는 그 테이프와 어디서 잘라냈는지 기억도 안 나는 반쪽짜리 사진뿐이었다. 테이프의 마지막 부분에는, 승원의 자살 장면이 찍혀있었다. 승원 스스로 찍은 듯한 이 영상에는 유서로 보이는 봉투가 확실하게 찍혀있었다. 사건 당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사체의 제1 발견자는 최승배 감독. 영상은 최 감독이 나타나 시체를 발견하고 카메라를 끄는 것으로 끝났지만, 정황상 그 후 최승배가 유서를 숨긴 것이 분명하다.

놀랍게도 사실을 알아차린 당신에게 찾아온 것은 최승배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이 테이프가 최승배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당신은 이 비디오로 최승배를 협박하기로 했다. 승원의 죽음을 거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기는 했지만, 신연주를 구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앞섰다. 최승배의 유서 은닉이 혹시 살인죄나 다른 죄에 해당하는지 대충 검색해 보았지만 그런 근거는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에게는 잃을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를 적대하는 순간 밥줄이 끊어질 것임을 잘 알고 있기에 나름의 대책은 세워두었다. 그간 사용하던 장비들을 비싸게 사줄 업자도 알아보았고, 최근 해외에서도 입되고 있다는 사실 실업보험도 알아보았다.

오늘 오후 10시 15분, 당신은 휴게실 뒤편으로 최승배를 불러내 신연주와 헤어질 것을 종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10년 전의 사건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최승배는 당신의 협박에 금세 체념했고, 당신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10시 30분에 컨테이너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조영신의 차가 철물점 방향으로 가는 것을 목격했지만, 그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컨테이너로 들어간 당신은 오랜만의 단잠에 빠졌다. 단잠을 깨운 것은 비명소리였다. 최승배는 죽었고 10년 전 사건을 밝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 누가 죽었는지 몰라도 그녀의 인생에서 최승배는 퇴장했고, 그녀를 살인자의 미망인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다.



폐기될 뻔했던 비디오테이프